

버려도 너무 버린다...전국 곳곳 쓰레기산 400여개

코로나 이후 쓰레기 급증...집콕족 늘며 택배 포장재·배달용기 폭증 10년 뒤 공공매립시설 47% 포화...일회용품 줄이기 모두 동참해야

장기화되는 코로나사태로 쓰레기 배출량이 폭증하고 있다. 플라스틱 포장용기와 의료용품, 1회용 생활용품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이다.

중국 난징 대학 평이핑·우페이페이 박사팀은 지난달 미국 국립 과학원회보(PNAS)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병원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 등으로 지난 8월 23일까지 193개국에서 84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했음을 뜻한다

외식을 줄이고 자택에서 밥을 먹는 일명 '집콕족', '집콕족'들이 늘어나면서 택배 포장재와 배달용기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식품소비행태조사'

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음식 배달이나 포장에 지출액 늘었다고 총 33.4%가 답했으며,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57.8%,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했다고 61.7%가 응답했다.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종이 폐기물은 24.8%, 플라스틱은 18.9%, 생활폐기물은 10.3%가 늘어났다. 이뿐만 아니다. 택배 상자 안에 넣는 완충재, 스티로폼은 14.4%, 비닐은 9.0%가 늘어났다. 연말, 2020년 폐기물 통계가 나오면 지금의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매립'이 있다. 그러나 10년 뒤, 우리나라 공공매립시설 215 곳 중에 47%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소각' 방법은 어떻게. 생활 폐기물들을 소각하면 매립지의 사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악취와

매연은 대기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어려움 속에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국에 쓰레기 산이 400곳 가까이 생겨났고, 각 지역들이 쓰레기 버릴 곳을 찾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가히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스타벅스 등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주 동구에서 약 100가구가 참여한 쓰레기 줄이기 생활 실험이 벌어졌다. 100일간 진행된 '쓰레기 줄이기 생활 실험'은 8월에는 기존대로 쓰레기를 배출했고, 9월부터 저울로 무게를 재며 배출량 추이를 점검했다. 실험 결과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의 배출량은 평균적으로 27%가 감소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고, 수많은 생활쓰레기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워드 코



가로변 상가의 쓰레기 봉투 집결지에는 암체죽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어김없이 쌓여 있다.

로나가 시작된 만큼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에 경각심을 느끼고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개개인의 재활용, 다회용품

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르며 모두가 생활환경 지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영 학생기자

제대로 안되는 분리수거...환경미화원 고충 더 늘어나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이물질 가득 깨진 유리 등에 베여 부상 잇따라

코로나19로 쓰레기가 급증하고있는 요즘 제대로 된 분리수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고충이 더 늘어나고 있다.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거주하는 환경미화원 최모 씨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팀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최 씨의 하루 일과는 6시에 출근해서 의무적으로 읍주 측정을 받고 탐별로 중요한 업무를 전달 받은 후, 차량 한 대에 운전자 1명 요원 2명으로 배치되어, 각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시작한다.

최 씨는 아파트부터 시작해, 일반주택, 상가를 돌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 작업은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정해진 구역의 음식물쓰레기가 다 수거가 되면, 남구 양과동에 있는 매립장으로 옮기는 것까지 마무리 작업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에 최 씨는 고충도 쌓여가고 있다. 최 씨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함께 닦이는 불편한 상황을 토로했다. 우선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는 음식물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깨진 유리, 이쑤시개, 칼, 페트병 뚜껑 등이 들어있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생활 쓰레기 수거팀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봉투 안에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나, 손 배임 등 부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발생,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가계 업소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100L에서 75L로, 일반종량제 봉투는 가장 크게 20L에서 15L로 변경되었지만, 용량을 초과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때문에



광주시 광산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최씨(오른쪽)의 작업 모습.

수거 도중 종종 다치는 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쓰레기 적치 장소에 접근할 수 없어 일하는 시간이 지체되는 점, 상가업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없애고 내놓는 게 원칙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옷에 튀고, 무게가 더 나가 힘을 많이 실어야 한다는 불편

한 점을 토로했다.

최 씨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며 쓰레기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밝혔다. /서진실 학생기자

환경 지키기 최일선...직업적 자부심·사명감

깨끗한 도시 지킴이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주로 새벽과 밤에 업무를 하며, 시군구급 지자체 소속이거나 지자체에서 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이다. 도로 주변이나 시설물을 청소하는 인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원으로 나뉜다. 구청에 소속된 거리환경미화원의 법정 1주간 근무시간은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의 8시간 근무한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격 규정은 각 구청에 따라 다르나 대개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다.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자질이라면 체력과 함께

공중위생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고, 아울러 도시미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직업적 자부심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다. 특히 거리환경미화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이 큰 직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힘들고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환경미화원은 현재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와 대우를 받는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쓰레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버리는 시민들 때문에 산재발생,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환경미화원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서진실 학생기자

“환경 도움 되도록 철저한 분리수거 실천하죠”

지구를 걱정하는 주부 한명희씨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한명희씨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왔다. 그러다 문득 일반적인 가정에서 접근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떠올렸고 이는 재활용 쓰레기의 철저한 분류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씨는 종이류, 캔류, 유리, 플라스틱류의 4가지로 재활용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여 종이류는 종이팩과 일반종이류로 구분하여 우유와 같은 종이팩은 물로 씻어 압축하여 분류하고 신문, 종이상자와 같은 종이류는 테이프와 같은 다른 재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물에 적지 않도록 하여 버리고 있다. 종이류는 한 박스에 모아 버리는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캔과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종류는 단계별로 나누어 버리는 것을 가족 모두가 생활화하고 있었는데 방법의 첫째, 용기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둘째, 이물질과 음식물이 묻어있는 용기를 물로 씻어주고 셋째, 용기와 라벨지 및 뚜껑의 재질이 다를 경우 하나하나 철저히 떼어내고 제거해준다. 마지막은 이들이 섞이지 않게 종류별로 구분한 뒤 압축이 가능한 용기는 압축하여 버린다.

한씨 자택의 경우 청소차가 매주 수요일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 가기에 이에 맞춰 수거일 전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 모두 그 안에서 화요일까지 쓰레기를 해결해야 하기에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쓰레기 절대량을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다음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 의무화에 따라 한씨의 분리수거는 더욱 철저해질 예정이다. /김희윤 학생기자



**국내유일
시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

전교생 시융합교육·시융합 인재양성

2021 과기부·광주광역시 '시융합대학지원사업' 선정

2021 산자부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 선정

2021 국가서비스대상 '시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

2020 국가서비스대상 '시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

AI시대 넥스트 챔피언!

